

LG하우시스, 매출 감소에 이익 급증

1/4분기 영업이익 357억원 달해 ... 건축자재·자동차소재 호조가 견인

LG하우시스(대표 오장수)는 2014년 1/4분기 연결 재무제표기준 매출액이 6864억원으로 2013년 1/4분기에 비해 16.5%, 영업이익은 357억원으로 48.7%, 당기순이익은 207억원으로 54.9%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매출액은 2013년 4/4분기 6958억원에 비해 1.4%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92억원에서 287%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유통채널 다변화를 통한 건축자재 매출 확대와 미국·중국 등 전략시장 중심의 해외 사업 호조, 자동차 소재부품의 성장 등의 영향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2014년 2월 서울 논현동 가구거리에 플래그십 매장 강남 지인 스퀘어를 열고, 온라인 창호전문 웹사이트 지인 윈도우 플러스를 개설하는 등 LG하우시스는 B2C 유통망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LG하우시스 관계자는 “2014년 2/4분기에도 친환경 건축자재 판매가 늘어나고 고기능·자동차 소재부품의 성장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지속적인 원가 혁신과 수익성 개선 노력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4/28>